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March 2026 Issue | Vol. 19

SPECIAL POINTS OF INTE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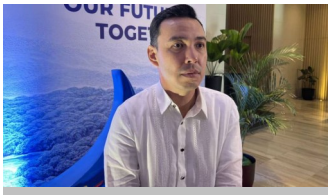
-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아세안, 새로운 무역 역학에 주목 — page 1
- 메랄코, 초기 원전 프로젝트 개발 위해 한국의 전문성 활용 — page 2
- 주 4일 근무제에 제조업 부문 취약 가능성 제기 — page 2-3
- 여행세 폐지 법안, 하원 위원회 통과 — page 3-4
- 아시아 경제권, 중동 전쟁 영향 최소화 움직임 — page 4-6
- 필리핀 은행 대출 증가율, 1월 9.3%로 둔화 — page 6
- 2026년 초 PEZA 투자, 350억 페소 감소 — page 6-7

UPCOMING EVENT

- [March 23, 2026] KCCP 제31회 연례 정기 총회 — page 8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아세안, 새로운 무역 역학에 주목

March 10, 2026 | Logan Kal-El M. Zapanta | Philippine Daily Inquirer



Benedict Uy —LOGAN KAL-EL M. ZAPANTA

마닐라, 필리핀 – 지정학적 격변과 무역 전쟁으로 인해 세계 무역 환경의 예측 불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동남아시아 경제권이 새로운 무역 역학을 모색해야 할 수 있다고 한 무역 관계자가 월요일에 밝혔다.

필리핀 무역산업부(DTI) 산하 대외무역서비스단(Foreign Trade Service Corps)의 사무총장인 베네딕트 우이(Benedict Uy)는 주요 지역에서의 갈등과 무역 정책의 '무기화'가 각국으로 하여금 오랜 경제 파트너십을 재평가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우이는 "중동에서의 갈등, 미국과 중국 간의 지속적인 무역 전쟁, 관세의 무기화, 그리고 과거 무역 파트너들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는 관계 등은 세계 환경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든 요인들 중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혼란이 진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를 활용해 새로운 무역 역학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러한 문제들은 수요일에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비즈니스 환경 포럼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행사는 필리핀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함께 개최한다.

지역 통합

이번 포럼은 이번 주 열리는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Asean Economic Ministers' Retreat)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무역과 투자 협력을 위한 필리핀의 아세안 의장국 역할 아래 열리는 첫 주요 행사 중 하나다.

우이는 이 포럼이 장관들과 고위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민간 부문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역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포럼은 장관급 정책 논의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포럼에서 기업 지도자들은 아세안 내 기업 활동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을 개선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하며, 정부 행정 과정에서 디지털 도구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의 지역 통합 강화 또한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이는 기자들에게 "아세안 경제가 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이러한 세계적인 긴장과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가 강하다면, 우리 수출업체들과 기업들은 이미 매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세안의 최신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역내 투자는 2023년에 310억 달러로 45%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에 이어 역내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 원천이 되었다.

2024년 아세안의 총 상품 교역 규모는 3조8천억 달러에 달했다. 아세안 경제권은 역내 상품 수출의 22.5%를 차지하며 가장 큰 수출 시장이었고, 수입의 20.3%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큰 수입 원천이기도 했다.

또한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에 따라 역내 무역은 대부분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원국 간 거래되는 제품의 99.86%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78397/asean-eyes-new-trade-dynamics-amid-global-uncertainty

메랄코, 초기 원전 프로젝트 개발 위해 한국의 전문성 활용

March 10, 2026 | Sheldeen Joy Talavera | BusinessWorld

(L-R) KEXIM Chairman and Chief Executive Officer (CEO) Kiyeon Hwang, Meralco Chairman and CEO Manuel V. Pangilinan, and KHNP CEO Dae Wook Chun. — MERALCO

마닐라 전기회사(Meralco)는 필리핀의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KHNP)과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한국의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원자로 설계와 엔지니어링에 관한 공동 논의를 진행하고, 기술 및 규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필리핀의 원자력 관련 법·제도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는 대중 수용성 제고 활동, 프로젝트 계획 수립, 부지 선정 연구 등 프로젝트 초기 단계 개발도 포함하고 있다.

세 회사는 사업 및 재무 모델링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특히 한국수출입은행(KEXIM)은 메랄코의 잠재적 프로젝트를 위한 "가능한 금융 구조와 신용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메랄코(Meralco)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마누엘 V. 팡길리난(Manuel V. Pangilinan)은 이번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KHNP)과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의 협력은 우리에게 검증된 글로벌 전문성을 제공하며, 기술, 사업 모델, 그리고 금융 옵션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양해각서는 이 중요한 과정에서 초기 단계이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는 또한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회사의 장기 전략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에너지는 우리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연료 시장 변동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메랄코의 이번 구상이 "필리핀 정부가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과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며, 회사가 이 기술이 향후 운영에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수력원자력(KHNP)은 한국전력공사(Korea Electric Power Corp.)의 자회사로,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발전 회사이며, 한국수출입은행(KEXIM)은 한국의 국영 공식 수출신용기관이다.

메랄코는 필리핀 최대의 민간 전력 배전 회사로, 39개 도시와 72개 지방자치단체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완전 자회사와 지분 투자를 통해 발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메랄코의 최대 주주인 비콘 일렉트릭 애셋 홀딩스(Beacon Electric Asset Holdings, Inc.)는 PLDT Inc.가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한편 PLDT Beneficial Trust Fund의 자회사인 MediaQuest Holdings, Inc. 산하의 Hastings Holdings, Inc.는 Philippine Star Group을 통해 BusinessWorld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corporate/2026/03/10/735093/meralco-taps-south-korean-expertise-for-early-stage-nuclear-project-devt/

주 4일 근무제에 제조업 부문 취약 가능성 제기

March 09, 2026 | Bless Aubrey Ogerio | BusinessMirror

기업 단체들은 주 4일 근무제가 제조업 부문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생산 중심 산업은 서비스 중심 기업과는 다른 운영 현실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긴장과 관련된 불확실성 속에서 에너지 절약 조치의 일환으로 3월 9일 월요일부터 정부 기관들은 한시적으로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필리핀산업연맹(Federation of Philippine Industries, FPI)은 근무 방식의 어떤 변화도 생산량, 납기 일정, 그리고 공급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Cont. page 3]

주 4일 근무제에 제조업 부문 취약 가능성 제기

[Cont. from page 2]

해당 단체는 근무일 단축 제안을 평가할 때 생산성과 비용 문제가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산업연맹(FPI)의 회장 엘리자베스 리(Elizabeth Lee)는 성명에서 "연속적인 생산이 중요한 요소인 제조업의 경우 그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공급망 안정성, 납품 일정, 그리고 역내 경쟁국 대비 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 회장은 시범 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평가가 보다 광범위한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서비스 중심 및 지식 기반 산업의 경우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유연 근무제나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도입하기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필리핀상공회의소(PCCI)도 유사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근무일 단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분야 중 하나가 제조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CCI는 성명에서 이 조치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며 직원 복지를 지원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 산업의 상황을 고려한 균형 있고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CCI 회장 페르디난드 페러(Ferdinand Ferrer)는 "제조업은 이미 제한된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무일 수가 더 줄어들면 우리의 업무 수행과 약속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유연한 근무 방식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산업별 운영 특성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PCCI는 정책 입안자, 노동 단체, 산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근무 제도를 마련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필리핀은 원유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전력 생산에서도 일부 석유 화력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공급 차질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근무 시간을 압축하거나 근무일을 줄이는 제도를 시범 프로그램 형태로 시험하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

Image credits: Vetre Antanaviciute-meskauskiene | Dreamstime.com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6/03/09/manufacturing-sector-seen-vulnerable-in-4-day-work-week/

여행세 폐지 법안, 하원 위원회 통과

March 09, 2026 | Kenneth Christiane L. Basilio | BusinessWorld

STOCK PHOTO | Image by L.Filipe C.Sousa from Unsplash

필리핀 하원 위원회는 여행객들의 부담을 줄일 필요성을 이유로 여행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월요일 승인했다.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는 여행세 폐지를 추진하는 6개의 법안을 통합한 대체 법안을 승인했다. 여행세는 수십 년 전 대통령령에 따라 도입된 세금으로, 당시 필리핀이 외환을 절약하고 국내 관광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대체 법안은 이제 하원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로 넘어가며, 본회의 상정 전에 해당 법안의 재정 관련 조항을 검토하게 된다.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마리키나 지역구 하원의원 미로 S. 킴보(Miro S. Quimbo)는 위원회에서 "정부의 중요한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우리의 세금 징수 체계가 역진적이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조세 제도는 반드시 누진적인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nt. page 4]*

여행세 폐지 법안, 하원 위원회 통과

[Cont. from page 2]

해외로 출국하는 항공 승객에게 이코노미석 승객은 1,620페소, 일등석 승객은 2,700페소의 여행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은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R. Marcos, Jr.) 대통령이 지정한 우선 법안이다.

여행세는 1956년 공화국법 제1478호(Republic Act No. 1478)에 따라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1977년 대통령령 제1183호(Presidential Decree No. 1183)를 통해 개정되었다. 현재 여행세 면제 대상에는 해외 필리핀 노동자(OFW), 필리핀에 1년 미만 체류한 해외 영주권자 필리핀인, 그리고 만 2세 이하의 어린이가 포함된다.

국회의원들은 여행세가 이미 그 목적을 다했으며 이제는 필리핀 국민의 여행을 저해하고 있다며 여행세 폐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는 일부 정부 기관들이 해당 세금을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온 입장이다.

BusinessWorld가 입수한 번호 미지정 대체 법안에 따르면, "법 시행일 이후 예정된 항공편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된 여행세가 있을 경우 징수 기관이 승객에게 즉시 환불해야 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여행세 수입의 50%는 관광 인프라 및 기업특구청(Tourism Infrastructure and Enterprise Zone Authority, TIEZA)에 배분된다. 또한 40%는 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고등교육위원회(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CHED)에 배정되며, 나머지 10%는 국가문화예술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NCCA)에 돌아간다.

킴보 의원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존속이 여행객 수나 우리가 그들에게서 징수하는 세금 규모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프로그램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수치에 의존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여행세 폐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부 기관과 그들의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국가 예산을 통해 재원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여행세 수입으로 기존에 추진되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6/03/09/735105/travel-tax-abolition-bill-hurdles-house-committee/

아시아 경제권, 중동 전쟁 영향 최소화 움직임

March 09, 2026 | By Agence France Presse | Manila Standard

마닐라, 필리핀 — 전쟁으로 영향을 받은 걸프 지역에서 수입하는 석유와 가스 공급 차질과 가격 급등에 직면하면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전쟁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몇 가지 조치들이다.

Motorists queue at a petrol station amid rising prices in Quezon City, Metro Manila on March 9, 2026. The price of the main US benchmark for oil surged more than 30 percent on March 9 over concerns that the Middle East war could create prolonged supply disruptions. (Photo by Jam STA ROSA / AFP)

한국, 연료 가격 상한제 검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원유 소비국이자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에너지 공급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연료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월요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가격이 상승한 석유 제품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단호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장은 금요일에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 항구로부터 원유 400만 배럴의 긴급 공급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관세 인하 추진

베트남 재무부는 국내 시장 안정을 위해 일부 석유 제품의 수입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 현재 무연 휘발유에 부과되는 10%의 관세와 디젤, 항공유, 등유에 적용되는 7%의 관세가 모두 일시적으로 면제될 예정이다.

[Cont. page 5]

아시아 경제권, 중동 전쟁 영향 최소화 움직임

[Cont. from page 4]

일본, 전략 비축유 사용 검토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 정부는 장기적인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 비축유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유업체들이 요구해 온 조치다.

일본 정부는 지난주 일본이 민간 부문이 보유한 물량을 포함해 원유 소비 기준 254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액화천연가스(LNG)는 약 3주 분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공무원 주 4일 근무 도입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필리핀에서는 연료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월요일부터 정부 부처들이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모든 정부 기관에 연료와 전력 소비를 10~20% 줄일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일부 주유소에서 줄을 서는 현상이 나타나자 경찰은 사재기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인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확대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현재 해상에 묶여 있는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가 구매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면제 조치를 허용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인도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로부터 연료를 조달하는 데 다른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현재 인도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인도가 2억5천만 배럴 이상의 원유와 석유 제품을 비축하고 있어 단기적인 공급 차질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도 석유부도 인도가 충분한 에너지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민을 안심시키는 한편, 상황에 따라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대만, LNG 공급 확보

기술 산업 비중이 높고 탄화수소 수입 의존도가 큰 대만은 카타르로부터의 LNG 공급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궁밍신(Kung Ming-hsin) 경제부 장관은 월요일 “3월과 4월을 위해 약 22차례의 LNG 선적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 가운데 20차례는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가 인근 시장 상황을 반영한 연료 가격 공식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석유제품 수출 중단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세계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은 국내 수요를 우선 충족하기 위해 주요 정유사들에게 디젤과 휘발유 수출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분석 업체 **클레퍼(Kpler)**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국이 해상으로 수입한 원유 가운데 약 57%가 중동 지역에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에너지 보조금 한계 경고

재정 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 속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정부의 대응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경고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장관은 금요일 “예산이 더 이상 유가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부담을 국민과 나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연료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 예산이 더 이상 확대된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연료 가격 인상

캄보디아 상무부는 국제 유가 급등을 이유로 주유소 소매 연료 가격을 인상했으며, 해당 가격은 화요일까지 3일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Con. Page 6]*

아시아 경제권, 중동 전쟁 영향 최소화 움직임

[Cont. from page 5]

이 동남아시아 국가는 소비자용 연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디젤과 석유 제품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한 비축량은 약 3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당 국가의 에너지 장관이 밝혔다.

미얀마, 연료 배급 시행하지만 가격은 안정 유지

토요일부터 미얀마 군사정부는 연료를 배급하기 위한 규정을 시행했다. 차량 번호판에 따라 민간 차량의 절반이 매일 도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AFP 기자들에 따르면 양곤의 일부 주유소 앞에서는 긴 줄이 형성됐으며, 운전자 한 명당 판매되는 연료량에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군정은 지금까지 연료 가격 인상은 제한적인 수준만 허용하고 있다.

태국, 석유 수출 중단

태국은 지난주 약 두 달 분량의 석유 공급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도, 비축량을 보존하기 위해 석유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디젤 가격을 리터당 약 30바트(약 0.94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15일 동안 시행했다.

Source: https://manilastandard.net/news/world/314713732/asian-economies-move-to-limit-mideast-war-impact.html

필리핀 은행 대출 증가율, 1월 9.3%로 둔화

March 10, 2026 | :Ian Nicolas P. Cigaral | Philippine Daily Inquirer

Bangko Sentral ng Pilipinas

마닐라, 필리핀 — 2026년 초 필리핀의 은행 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소비자 대출은 여전히 견조한 가운데 신용 증가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의 예비 자료에 따르면, 유니버설 은행과 상업은행이 제공한 대출은 1월에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이는 12월의 수정된 증가율 9.6%에서 다소 낮아진 수치다.

은행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 대출은 1월에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한편 거주자 대상 소비자 대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했으며, 이는 12월의 수정된 증가율 21.5%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가계 대출에는 신용카드 부채, 자동차 대출, 일반 목적의 급여 대출 등이 포함된다.

중앙은행은 은행 대출이 통화정책이 경제에 전달되는 주요 경로이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앞으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유지와 금융 시스템 보호라는 책무에 부합하도록 국내 유동성과 은행 대출 여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78483/philippine-bank-lending-growth-slowed-to-9-3-in-january

2026년 초 PEZA 투자, 350억 페소 감소

March 10, 2026 | Bless Aubrey Ogerio | BusinessMirror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의 투자 승인 규모가 2026년 첫 두 달 동안 33% 감소해, 신규 및 확장 프로젝트 52건을 포함해 총 353억7천만 페소를 기록했다.

투자유치 기관인 PEZA는 이번 승인된 투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된 529억3천만 페소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당시에는 39개 프로젝트가 승인된 바 있다.

[Cont. page 7]

PEZA Director General Tereso Panga

2026년 초 PEZA 투자, 350억 페소 감소

[Cont. from page 6]

투자 금액은 감소했지만, PEZA는 1월부터 2월까지 승인된 프로젝트들이 5,049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104억4,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승인된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제조업 분야로, 20건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 뒤를 이어 경제특구 개발 분야가 12건,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 분야가 7건을 차지하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주요 투자 유입국으로는 한국, 인도네시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중국, 일본 등이 있었다.

2월 한 달 동안만 PEZA 이사회는 34건의 신규 및 확장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투자 규모는 225억500만 페소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기록된 227억8천만 페소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지만, 프로젝트 수는 26건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승인된 프로젝트들은 약 103억8,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창출하고 4,044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달에 승인된 34개 프로젝트 가운데 13개는 수출 제조업 투자, 5개는 IT-BPM 프로젝트, 5개는 시설 개발, 2개는 물류 분야, 1개는 내수 시장 프로젝트, 1개는 관광 관련 사업, 그리고 7개는 경제특구 개발 사업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메트로 마닐라, 칼라바르손(Calabarzon), 중앙 루손(Central Luzon), 카가얀 밸리(Cagayan Valley), 중부 및 서부 비사야(Central and Western Visayas), 일로코스(Ilocos) 지역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PEZA는 불라칸(Bulacan), 팜팡가(Pampanga), 탈락(Tarlac)에서 추진될 향후 프로젝트를 통해 총 183억6,700만 페소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3개의 주요 사업이 있다고 밝혔다.

테레소 팡가(Tereso Panga) PEZA 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투자 승인 규모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팡가 청장은 "산업 참여 확대, 지역 확장 심화, 그리고 투자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특구 개발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리아 크리스티나 로케(Maria Cristina Roque) 무역산업부 장관이자 PEZA 이사회 의장은 고부가가치 및 수출 지향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특구 확장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의 지정학적 긴장과 관련해 PEZA는 향후 몇 달 동안 글로벌 상황이 투자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공급망과 투자 심리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은 중동 및 기타 지역에서의 갈등 심화가 국제 유가 상승을 초래하고 물류 문제를 발생시켜 수출 중심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팡가 청장은 "PEZA는 세계 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투자 목표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는 동시에 우리의 전망이 현실적이며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필리핀은 원유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전력 생산에서도 석유 화력 발전소에 일부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공급 차질에 취약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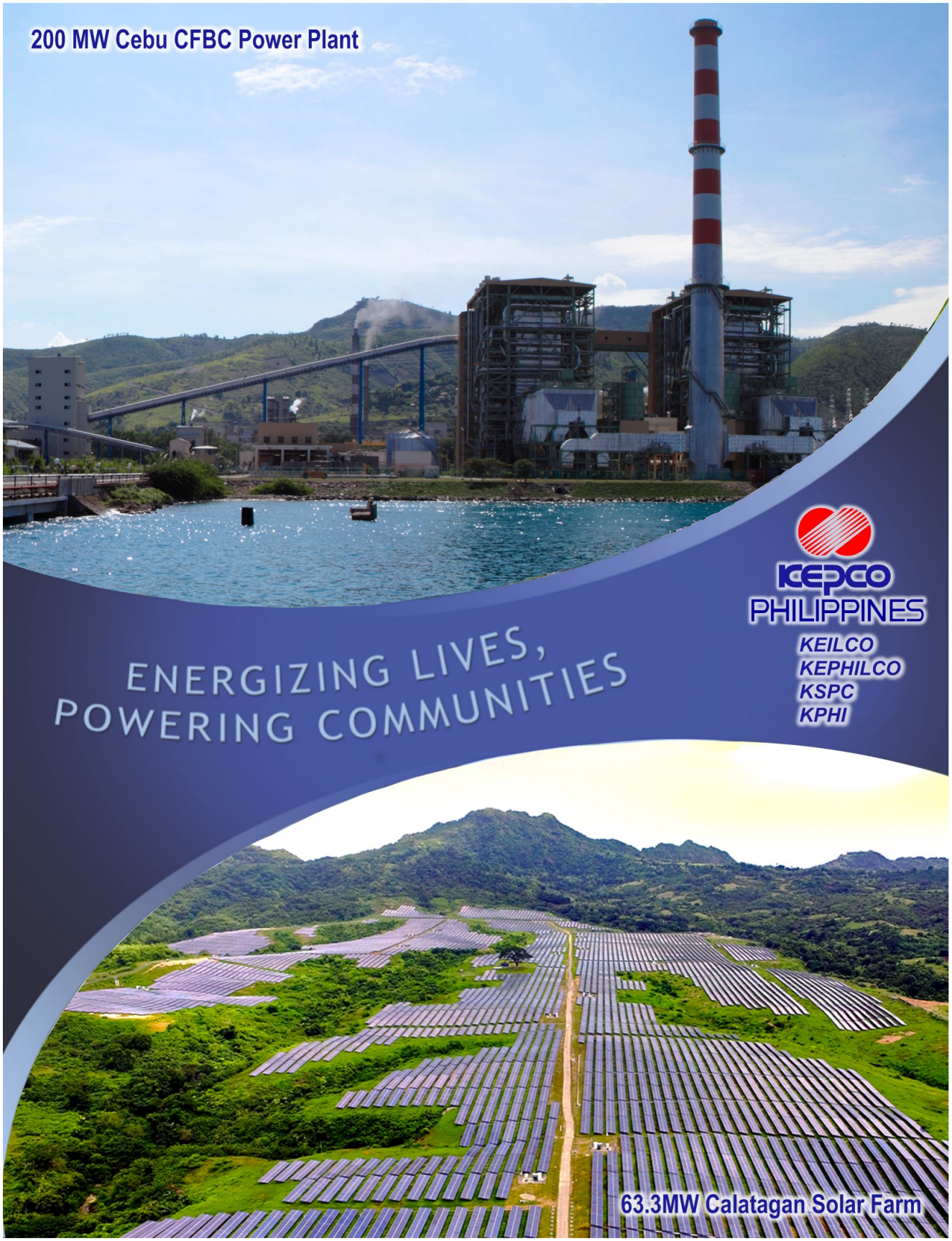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6/03/09/peza-investments-for-early-26-drop-to-%e2%82%b135b/

[UPCOMING EVENT] KCCP's 31st Annual General Membership Meeting | March 23, 2026

KCCP will hold its **31st Annual General Membership Meeting** on **March 23, 2026 (Monday) 5:30PM at the Ayala Ballroom, Makati Sports Club** located at L.P. Leviste corner Gallardo Sts., Salcedo Village, Makati City This event gathers KCCP's member companies, embassy officials, Korean and local partner organizations and other guests for this important event. KCCP is expecting 120-140 attendees.

The event is also open for sponsorships.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event and mileages for sponsorship, please feel free to call KCCP Secretariat at 8885-7342 or 0917-8015920 (c/o Ms. Chi and /or Ms. Sang)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